

“에어컨 수요 급증”... 삼성전자, 광주공장 풀가동

역대급 무더위 예보·신제품 인기에 생산라인 강화
4월 한 달 무풍 에어컨 10주년 기념 프로모션 진행

삼성전자가 여름철 수요 증가에 대비해 에어컨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역대급 무더위 예보와 2026년형 신제품 인기에 맞물려 생산라인을 풀가동하며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광주사업장에 위치한 에어컨 생산라인을 2월부터 풀가동 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3월에는 한 달간 ‘에어컨 사전점검’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실시하며 역대급 더위에 대비해 고객 지원을 강화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고도화된 AI 기술을 기반으로 사용자 생활 패턴과 공간에 맞춰 최적의 냉방 환경을 제공하는 AI 무풍 에어컨 신제품을 출시하며 기술 리더십을 공고히 했다. 2026년형 에어컨 신제품은 스탠드형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갤러리 프로’와 벽걸이형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프로 벽걸이’ 2종이다. 신제품에 새롭게 적용된 ‘AI·모션 바람’ 기능은 사용자의 위치와 공간 구조를 반영해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정교하게 제어한다. ‘AI·모션 바람’은 사용자가 있는 공간으로 냉기를 바로 전달하는 AI 직접, 사용자가 없는 방향으로 바람을 보내는 AI 간접 등 AI 기반으로 동작하는 바람 2종과 순환, 원거리, 무풍, 맥스 등 일반 모션 바람 4종으로 구성됐다. 벽걸이형 신제품은 이에 더해 ‘상하’ 바람까지 총 7가지 바람을 제공해 실내를 빠르고 고르게 냉방한다. 이외에도 실내의 환경과 공기질, 사용 패턴 등을 분석해 냉방 방식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AI 쾌적

모드, 공간의 습도까지 쾌적하게 관리하는 ‘쾌적제습’을 갖춰 실내 환경을 한층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디자인도 완전히 새로워졌다. 스탠드형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갤러리 프로’는 슬림한 바디와 폴 메탈 패널, 패브릭 패턴의 측면 디자인으로 공간과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프로 벽걸이’는 심플한 그라드 디자인으로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한다. 또 AI 음성비서 빅스비를 지원해 자연스러운 대화로 손쉽게 제품을 제어할 수 있으며, 갤럭시 위치와 연동한 ‘웨어러블 굿슬립’ 기능으로 사용자의 수면 상태에 맞춘 맞춤형 냉방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4월 한 달간 무풍에어컨 10주년 기념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2026년형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갤러리 프로,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프로 벽걸이부터 비스포크 AI 무풍 클래식, 창문형 에어컨 등 삼성 에어컨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할인 및 캐시백 등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삼성전자가 다가오는 더위로 급증하는 에어컨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에어컨 생산라인을 풀가동 하고 있다.

“아이오닉 상륙”...현대차, 전기차로 중국시장 공략

컨셉트카 2종 세계 첫 공개
독창적 브랜드 생태계 조성

현대자동차가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을 내세워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선다. 현대차는 지난 7~10일 중국 현대 모터스튜디오 베이징에서 ‘아이오닉 브랜드 론칭 행사’를 열고 아이오닉 브랜드의 중국 진출을 공식화하며 컨셉트카 2종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현대차가 아이오닉 브랜드를 중국에서 선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사람을 향하는 브랜드 비전 ‘휴머니티를 향한 진보’ 아래, 중국 소비자를 위한 맞춤형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아이오닉을 완성했다. 이번 브랜드 론칭은 신차 출시를 넘어, 아이오닉의 기술·제품·서비스를 중국 고객의 라이프스타일 중심으로 재구축한 독창적 브랜드 생태계를 통해 달라진 현대차의 모습을 제시했다. 현대차의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은 2020년 론칭 이후 전세대로부터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받아왔다.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는 각각 2022년과 2023년 월드카 어워즈에서 ‘올해의 차’, ‘올해의 전기차’, ‘올해의 디자인’ 부문에, 아이오닉 5 N과 아이오닉 6 N은 각각 2024년과 올해 월드카 어워즈에서 ‘올해의 고성능 자동차’ 부문을 석권한 바 있다. 현대차는 지금까지 쌓아 올린 안전성과 품질을 바탕으로 중국 소비자 맞춤형 현지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기술 로드맵을 제시했다. 중국 자율주행 기술 전문 기업 모판타와 협업해 현지에서 최적화된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하는



현대차는 지난 7~10일 중국 현대 모터스튜디오 베이징에서 ‘아이오닉 브랜드 론칭 행사’를 열고 아이오닉 브랜드의 중국 진출을 공식화하며 컨셉트카 2종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한편, 현지 충전 인프라 및 장거리 이동 환경 등을 고려한 현대차 최초의 EREV(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기술을 중국 시장에 선보인다. 또 기술 현지화를 넘어 기존 아이오닉 네이밍 방식과 차별화해, 중국 시장에서는 고객의 삶을 우주의 중심에 두고 이를 공전하는 ‘행성’을 모티브로 한 새로운 모델명 체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브랜드와 판매 채널, 제품 등 모든 서비스가 철저히 소비자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중국 맞춤형 전동화 경험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국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과 니

즈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디자인 언어인 ‘디오리진’도 소개했다. ‘기원’이라는 뜻의 ‘디오리진’은 트렌드를 따르지 않고 현대차만의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이겠다는 의미다. 현대차는 ‘디오리진’ 디자인 언어와 행성 네이밍 체계 아래, 현지 고객에게 맞춤 설계된 콘셉트카 ‘비너스 콘셉트’와 ‘이스 콘셉트’를 공개했다. 베이징현대 리빙랩 총경리는 “두 대의 콘셉트카를 시작으로 중국 고객에 대한 깊은 고민과 진정성을 담은 결과물을 선보일 예정”이라며 “글로벌 최고 수준의 안전과 품질이라는 아이오닉

의 타협할 수 없는 원칙 위에 중국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스마트 주행과 실내 UX 경험을 완벽하게 결합한 양산 제품을 곧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4월 말에 열리는 ‘2026 베이징 국제 모터쇼’를 기점으로 중국 시장에서의 전동화 전략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현대차는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으로 공개하고, 구매부터 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EV 판매·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금호타이어, 폭스바겐에 타이어 공급
엔야크·엘록에 ‘엑스타 PS71 SUV’

금호타이어는 유럽 폭스바겐그룹 산하에 있는 브랜드 스코다의 전기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엔야크’와 ‘엘록’에 신차용 타이어(OE)로 엑스타(ECSTA) PS71 SUV 제품을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스코다의 ‘엔야크’와 ‘엘록’은 모두 폭스바겐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MEB를 기반으로 제작된 전기차 SUV 모델이다. 두 차량 모두 전기차 SUV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술과 디자인 요소를 접목했다. 특히 엔야크는 디자인 혁신과 함께 공기역학적 성능을 향상 시켰으며 엘록은 환경 친화적인 전기차의 장점을 극대화했다. 이번 엔야크와 엘록에 공급되는 ‘엑스타 PS71 SUV’는 금호타이어의 스포츠형 라인업 엑스타 브랜드의 대표 모델로, 마른 노면 및 젖은 노면 주행 조건에서의 핸들링과 제동 성능에 최적화 개발된 제품이다. 또 엑스타 PS71 SUV는 기존 엑스타 PS71 핵심 기술에 SUV 차량의 특성을 고려해 구조 보강 설계, 접지 면적을 극대화했으며, 제동 및 마찰리지 성능이 향상된 것이 제품의 특징점이다. 아울러 패턴에 인-아웃 디자인과 하이브리드 신 기술을 적용해 도로상황과 무관하게 고속주행 시에도 조정한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엑스타 PS71은 PCR 규격을 시작으로 현재까지는 SUV 규격까지 폭넓은 차종에 적용 가능하며, 주요 EV 차종까지 대응 가능한 다양한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OE영업본부장 김인수 전무는 “스코다는 유럽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브랜드로 이번 신차용 타이어 공급은 금호타이어 제품의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품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프리미엄 자동차 제조사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호타이어의 엑스타 PS71 SUV는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티브 알라드에서 실시한 SUV 여름용 타이어 부문 테스트에서 국내 타이어 업체들 중 가장 높은 성적인 종합 4위(Good 등급)를 차지하며 글로벌 최상위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또 금호타이어는 세계 주요 자동차 업체들과 신차용 타이어 공급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으며 타이어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소형 SUV 1위”...기아 디올 뉴 셀토스

3월 국내 4983대 판매로 차급 1위...1세대 명성 이어가

기아는 ‘디올 뉴 셀토스’가 지난달 국내 시장에서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가운데 가장 많은 4983대가 판매됐다고 13일 밝혔다. 셀토스가 소형 SUV 1위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하면서 2020년 이후 소형 SUV 연간 판매 1위 자리를 지켜온 1세대의 명성을 2세대에서도 이어갔다. 계약 고객 분석 결과, 셀토스의 20~30대 고객 비중은 30.5%로 기존 모델의 27.8%보다 높아져 젊은 층의 선호 확대가 두드러졌고, 남녀 성별 비중은 51:49로 균형을 이뤘다. 지난해 서울시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 기준 20~30대 비중이 18.1%, 남녀 성별 비중이 73:27인 점을 고려하면, 셀토스가 젊은 세대는 물론 남

녀 고객 전반으로부터 고른 호응을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지난해 출고된 셀토스 가운데 최상위 트림인 ‘시그니처’가 45.5%, 디자인 특화 트림인 ‘X-Line’이 21.9%를 차지하며 상위 트림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소형 SUV 차급에서도 차량 선택 기준이 가격 중심에서 디자인 완성도, 편의 사양, 감성 품질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하이브리드 모델은 판매 비중 38.6%를 차지하는 등 최대 19.5km/ℓ의 경쟁력 있는 연비를 바탕으로 최근 고유가 흐름 속에서 고객에게 실속 있는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다. 기아는 셀토스 시그니처 트림에 1열 릴렉스 컴



포트 시트, 오토 플러시 도어오프, 기아 디지털 키 2, 100W C타입 USB 단자 등 상위 차급 수준의 편의 사양을 기본 적용했다. 기아는 이러한 셀토스의 차별화된 상품성과 기술 경쟁력을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영상 콘텐츠 ‘움직임에 지능을 더하다’를 새롭게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는 하이브리드 모델에 적용된 연비 향상 신기술인 ‘하이브리드 계층형 예측 제어(HPC

)와 한층 진보된 청취 경험을 제공하는 ‘바이브로 사운드 시트’의 특징과 작동 원리를 소개한다. 하이브리드 계층형 예측 제어는 내비게이션 목적지 설정 시 내비게이션 정보와 레이더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주행 상황을 예측하고 고전압 배터리 충전 흐름을 최적화해 실주행 연비를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바이브로 사운드 시트는 음악의 저음 주파수를 분석해 운전석과 동승석 시트에 내장된 네 개의 진동자 비트를 전달함으로써, 청각과 촉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몰입감 높은 4D 사운드 경험을 제공한다. 기아 관계자는 “디올 뉴 셀토스는 디자인, 효율, 실용성, 편의성 전반에서 균형 잡힌 경쟁력을 갖춘 육각형 SUV”라며 “첫 차를 고민하는 사회 초년생부터 일상 주행과 레저를 함께 즐기는 고객까지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만족시키는 모델로서 소형 SUV 시장의 기준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